

## 한국 전통부엌 공간과 인간의 생태학적 관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Ecological Relation of Space and Human in the Kitchens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이영미\*  
Lee, Young-Mi

천득염\*\*  
Cheon, Deuk-Youm

#### Abstract

Though the kitchens of traditional residence architecture are recognized as having significant importance to houses themselves, to women who are supposed to do most of the housekeeping work, they are generally thought to be irrational space. This study tries to show through a demonstrative way that the kitchen space of traditional houses is the sensible and rational living space for the health's sake of all family members in the relations among humans, space and environment. Through this study, we were able to see that the architectural work of our ancestors in designing space had different views from those of the West in that our ancestors had sought the outcome taking the interrelations among environment-humans-space seriously in order to shape the physical organization for human beings.

Keywords : Korean Traditional Residence Architecture, Kitchens, Human Body, Ecology, Ergonomics

주요어 : 한국전통주거건축, 부엌, 인체, 생태학, 인간공학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주거 공간 중 부엌은 인간을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즉, 부엌은 주부가 가사노동을 하는데 있어 중심공간일 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한 식생활을 담당하는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오랜 세월동안 형성되어온 민족의 식습관은 민족의 본질과 문화를 규정하는 큰 요소가 되듯이 한 가족의 생명을 유지하고 가정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는<sup>1)</sup> 부엌은 그 가정의 건강한 삶의 문화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부엌의 역사는 인류생존 역사에 버금가는 공간이자,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한집안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소인 동시에 가장 다목적으로 쓰이는 공간이다. 이는 부엌 안에서 다양한 삶의 행위가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이 공간에 담긴 의미가 다양하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주거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 주거의 부엌은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에게 비능률적인 건축 공간이라는 것

이 보편적 인식이다. 물론 공간을 계획함에 있어서 공간의 사용 주체인 인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공간을 계획하는 건축적 행위는 환경-인간-공간 서로의 상호관계를 중요시 여긴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양과는 다른 관점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부엌은 단순히 그 공간을 사용하는 인간의 물리적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부엌과 다른 공간과의 관계, 더 크게는 환경, 그리고 공간의 사용자와의 관계 속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주거의 부엌에 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일차적 목적은 가사노동의 측면에서 비합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부엌공간에 대해, 실증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공간이 인간을 위한 물리적 셋팅 체계를 가지고 있는 생활공간이었음을 밝히는데 있다. 더 나아가 부엌은 공간과 인간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건강한 삶을 위한 생태학적 생활공간이었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한다.

#####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으로는 비교적 부엌의 원형을 고찰할 수 있는 조선시대 상류주택으로서 다음 <표 1>과 같이 7개 가옥을 선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정회원, 이영미, 전남대학교 외래강사, 공학박사, post-doc 과정

\*\*정회원, 천득염,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이 논문은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주영애, "조선조 상류주택의 살림공간에 관한 생활 문화적 고찰",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1992.3 p.1

표 1. 연구 대상

가옥명	지정번호	건립연대	위치
김동수가옥	중요민속자료 제26호	1784년	전북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814
윤증고택	중요민속자료 제190호	조선 후기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306
윤택영가옥	서울시 민속자료 제24호	1900년대초	서울시 중구 필동 2가 84-1일원
박영효가옥	서울시 민속자료 제18호	19세기후반	상동
김춘영가옥	서울시 민속자료 제8호	조선 후기	상동
윤씨친가	-	1900년대초	상동
윤조루	중요민속자료 8호	1776년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103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먼저, 조선시대 인체의 기본 모듈과 전통건축의 물리적 구축 체계-모듈의 개념으로서 間-의 특성이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인체공학적 분석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행위를 위한 합리적 공간으로 계획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전통 부엌공간이 자연·사회·문화적 인자에 대응하여 어떻게 적용하면서 생태학적인 생활공간을 창출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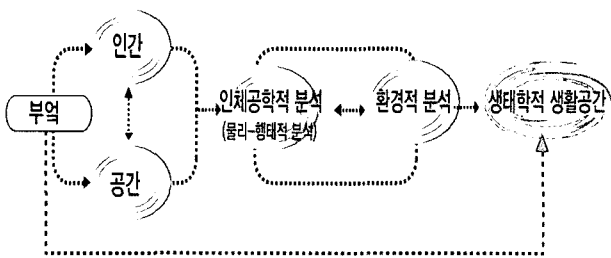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방법

II. 건축공간과 인간의 행태<sup>2)</sup>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1. 건축공간과 인간 행태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의 필요성

과학 기술의 발달, 인구 증가, 자연자원의 고갈 등으로 출현하게 된 인공환경에서 최적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려는 인간의 욕구로 인해 인간과 물리적 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때의 인간은 전일적, 유기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디자인을 계획에 영향

2) 행태란 인간의 모든행위가 유발되는 동기에서부터 행위 전개의 메카니즘,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행위 태세를 총칭하며, 여러 행위의 일반적 패턴과 속성을 알 수 있을 때 행태해석이 시작된다. 그 해석의 대상은 인간 상황의 매우 잠재적이며, 이면의 것을 살피는 기초학에서부터 인체 측정학과 같은 구체적이며 현저한 상황의 대상이 있어 이들 중 몇 개의 것은 그 분석을 포괄할 수 있으나 어느 것은 환경행위의 유형을 암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다.

표 2. 인간-공간에 반응하는 생태학적 지각 단계

단계	내용
1단계	신체의 물리적 크기와 동작 범위
2단계	인간의 오감기관을 통해 인지
3단계	인간의 장소이동을 통해 위의 2단계가 재정립

을 주는 환경에서의 인간 행위와 서로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이 필요하다.

C.A.Doxiadis는 인간과 물리적인 상황의 관계를 지각하는 것은 공간의 크기와 거리에 따라 생태학적인 입장에서 가장 적절히 반응하는 지각특징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즉, 이것은 사람이 주어진 환경속에서 공간을 지각할 때, 자신의 신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체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인체에 대한 관심은 서양에서는 고대에서부터 인간의 신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수많은 시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비투르비우스, 미켈란젤로, 알베르티, 르 꼬르뷔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체에 대한 연구가 실용화되고 체계화되어 왔다. 그러나 인체를 단순히 기계적인 수치로 접근해온 과거의 방법은 산업화사회에서는 적합하였으나 정보화되고 다양화된 패러다임의 흐름속에서 더 이상 적합하지 못한 이론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에 인간의 신체는 정보처리 측면에서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대두되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의 신체는 계층적 측면이 아니라 건축공간과 인간의 정신이 만나는 매개체로서 바라보아야 하며, 신체의 중심성과 관련하여 공간경험의 중요한 개념으로서 인지-생태적 속성을 통해 해석되어야 한다. 즉, 위의 지각단계에서 나타난 바처럼 인간의 신체를 기준으로 출발하되 이러한 인간의 지각적 특성이 고려된 ‘공간의 인간화’라는 개념은 공간개념이 중요시 된 것이다. 이처럼 최근에 인지-지각-행태적 사고유형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인간과 공간 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개념의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생태학과 생태건축의 대두

생태학<sup>3)</sup>(Ecology)은 1866년 독일의 생물학자인 Ernst Haeckel<sup>4)</sup>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생태학은 생물과 환경과의 여러 관계를 다루는 생물학의 한 분야를 의미”<sup>5)</sup>하

3) 생태학(Ecology)의 어원은 희랍어로 집을 의미하는 Oikos(家事)와 logos(學文)에서 비롯되며, 넓은 의미로 환경에 관한 연구가 된다. 생태학은 1960년대 이전에는 생물학의 한 분과로만 인식되어 오다가 1960년대 후반 인간의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생태학의 범주에서 벗어나 고유한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4) 1866년 생물학자인 헤켈의 ‘유기체의 일반적 형태학’이라는 연구에서 소개되었으며 이를 유기체와 그의 외부적 환경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일반과학이라고 정의 내렸다.

5) 라이너 그룬트만, 마르크스주의와 생태학, 동녘, 1995, p.11

며, 더 나아가 “유기체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유·무기 환경과의 연관관계에 관한 총체적 학문이며, 넓은 의미에서 외부환경에 속한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생존 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즉 생물학, 식물학, 동물학처럼 하나의 분과과학으로 취급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포괄되어 있는 현상으로서 인간을 포함한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모든 생명체가 거주하고 있는 집=자연환경)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sup>6)</sup>이다.

생태건축의 개념은 “인간이라는 군집이 처한 환경, 즉,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과 그에 따른 다양한 생활 욕구가 생존공간의 생태학적 특성과 균형 조화를 이루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정주문화를 이룩하고 이것이 건축으로 가시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sup>7)</sup>. 이러한 생태학적 패러다임의 대두로 인해 현대건축의 가장 큰 변화는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사이의 관계성 상실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 전통적 자연관과 서양의 생태학적 관점의 차이

자연을 생명체로 보거나 에너지의 순환과 절약, 자연과 인간이 대립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합일을 추구하는 관계로 보는 것은 성리학·도교·불교·풍수지리 등과 같은 우리의 전통적 자연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생태학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표 3. 전통 사상에 나타난 자연관의 생태 건축적 특성

자연관	생태학적 특성
성리학	상보적, 생성, 유기적, 자연과 인간의 합일
불교	생명순환사상, 유기적, 공사상, 만물일체론, 자연과 인간의 합일
도교	有無의 대립성, 다양성, 불확정성, 유기적, 자연과 인간의 합일
풍수지리	생명체로서의 자연, 자연에 순응, 에너지 절약, 자연경관

이들은 각기 다른 전통사상들이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생태학적 특성은 서로 개별적인 것들이 아니라 서로 그 내용들이 중첩되며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의 전통적인 자연관속에 구현된 생태학적 사고는 독립된 사유체계로 존재한다기 보다는 사회·문화 전반에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는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보여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프리츠포 카프라<sup>8)</sup>가 신과학에 의해 나타난 새로운 패러다임-전일적 세계관-을 동양적 세계관의 개념들과 어법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며 ‘관계’에 초점을 두는 전통사상의 생태학적 접

근은 현대의 생태학이 추구하는 것과 유사하며, 이것은 우리에게서 결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양에서 인식하는 근대의 자연은 단순히 대상일 뿐이며 기계론적으로 발전하여 그것을 이용하고 소비하는 객체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자연관에서 말하는 자연은 대상으로서의 자연이되 인간과 상호관계에 놓여 있는 대등한 존재로서의 자연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양에서 바라보는 존재론적 자연관보다는 한 차원 높은 것<sup>9)</sup>이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우리의 전통사상에 나타난 생태 철학적 사고는 대단히 진보적인 것이다. 논리의 정합성 면에서 보더라도 현대 서양의 사유보다도 크게 앞서는 것이다. 특히, 현재 서양의 생태학적 패러다임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은 우리의 순환적 자연관에 비추어 본다면, 아직까지도 개발의 주체를 인간으로 보고 있는 개념이다. 이에 반해 전통 사상에 나타나고 있는 자연관은 인간의 원리가 자연의 원리에 부합될 것을 요구한다. 즉, 자연과 인간이 대등한 존재로서 상호작용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III. 전통 주거건축의 부엌 공간과 인체척도

1. 전통건축의 모듈 - 칸(間)

건축에서의 모듈은 규모의 단위로서 또 재료, 구조 및 공간을 결정짓는 계획원리로서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이다. 건물이나 건물 내의 각 공간은 건축목적 및 용도에 의해 그 형태나 규모가 정해지지만, 각 공간은 최종적으로 건축기본단위척인 모듈을 통해 해석되고 구체화된다. 고대 그리스 건축에서는 기둥의 직경을 1모듈러스(modulus)로서 다른 부재의 치수를 비례적으로 결정하였다. 목조가구식의 구조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던 한국의 전통건축에 있어서 기둥으로 이루어지는 칸의 개념은 하나의 계획 모듈로서 규모의 단위뿐 아니라 평면 형식 및 구조와 재료 등 건축전반에 걸친 기준이 되어 왔다. 칸은 기둥과 기둥사이 또는 네 기둥이 서서 이루는 공간을 의미한다.

2. 부엌의 작업 행위에 따른 공간 구성

건축의 내부공간은 한사람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이나 특별한 생활목적에 의해 특정 장소를 차지한다. 그때 인체나 동작, 필요한 물건들과 그것들의 움직임에 따라 하나의 동작공간을 형성하며, 이러한 동작공간은 여유 공간을 포함하여 다시 몇 개의 동작공간이 혼합되어 집합적인 단위공간을 이루게 된다.

한국전통주거의 부엌은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른 위계와

6) Fritjof Capra, The Web of Life, May 1998  
 7) 오창권, 생태학적 패러다임의 건축적 적용에 관한 연구, 홍대 석논, 1996, p.55  
 8) 카프라(F.Capra)는 서양과학문명이 막다른 길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것의 해결은 동양사상으로의 회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9) 이영미, 한국전통건축과 Landscape 건축에 나타난 생태학적 특성, 건축역사연구, 제 14권 4호, 통권 44호, 2005.12, p.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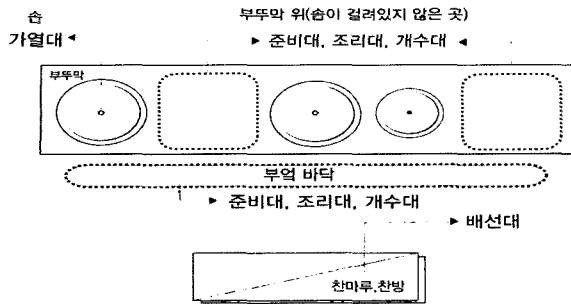


그림 2. 부엌의 작업과 수납영역의 도식화

공간 구성<sup>10)</sup>을 지니기도 하며, 다양한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를 크게 나누면 부뚜막을 중심으로 해서 난방과 취사 등의 가사 노동이 이루어지는 작업영역과 그릇이나 곡식을 수납하는 수납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영역들을 현대 부엌의 작업대와 관련지어 살펴보면 다음 <그림 2>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1) 작업 영역

① 가열 및 난방 공간

부뚜막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작업영역으로써 난방과 음식의 가열의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다. 부뚜막은 안방 쪽으로 붙여 만들어 가열 및 난방 공간을 형성하였고 대개는 진흙과 같은 고운 흙과 벽돌로 만들어졌으며, 이곳에는 대·중·소 크기의 숯이 앉힌다. 이곳은 현대 부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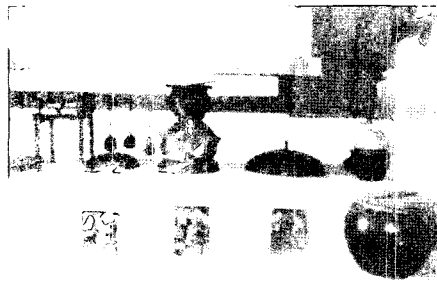


그림 3. 부뚜막의 모습

10) 상류주택의 경우 집안의 행사가 많은 관계로 이에 필요한 음식물과 부엌기물을 별도로 수납할 공간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부엌이 외에도 쌀을 담아두는 항아리나 독을 두는 공간, 부식재나 조리기구를 두는 고방, 나무를 저장하는 나뭇광 등의 부속공간을 두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서민주택에서의 부엌 가구 배치방법은 상류주택과 비교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서민주택에서는 안방 옆에 붙은 대청에 찬장과 뒤주를 두었으며, 벽면에 맨 시렁에는 소반을 얹고, 들보 사이에 맨 시렁에는 젓상을 올려놓았다. 서민 주택의 부엌은 크게 부뚜막, 찬마루, 나뭇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뚜막은 안방에 인접하고 있으며 상류주택과 같이 대, 중, 소 크기의 세 개의 숯을 걸어 놓았으며 부뚜막 맞은편에는 나무로 찬마루를 만들어 작업을 하고 음식을 차렸는데, 그 위에는 식기와 조리용구 등을 수납하는 공간을 두었다. 그리고 찬마루 밑에는 큰 독을 물고 그것을 물독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형편이 더욱 어려운 서민주택에서는 부엌바닥에 토단을 쌓아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부뚜막 맞은편 한구석에는 나무와 숯가지 같은 펠감을 벽에 기대어 놓거나 흙으로 칸을 나누어 쌓아 놓았다.(박영순 외 7인,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pp.155-156 수정인용)

공간에서의 가열대에 해당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② 조리 공간

부뚜막에서 숯과 숯이 걸려있는 사이의 공간은 음식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작업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③ 개수 공간

음양오행의 사상적 영향에 의해 우물가는 부엌과 멀리 떨어져 설치되었고, 이에 따라 물을 길어다가 부엌안의 큰 물독에 담아 두고 필요할 때마다 퍼서 쓰게 되었다. 설거지는 주로 부엌 내에 설거지대나 부엌과 연결된 찬마루에 놓고 하며, 식료를 다듬고 씻는 행위는 우물가에서 행하였다<sup>11)</sup>. 설거지물의 하수는 부엌 내에 하수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개수통에 모아서 처리하였으며 보통 우물가나 집 뒤에 만들어 놓은 도랑에 버린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엌 바닥에는 물지게, 물항아리, 물동이 등이 놓이며, 그 위쪽의 벽에는 머리 받침대, 물바가지 등을 걸어놓았다.



그림 4. 물항아리와 물바가지

2) 수납 영역

① 배선 공간

상류주택의 경우 집안의 행사가 많은 관계로 이에 필요한 음식물과 부엌기물을 별도로 수납할 공간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부엌이외에도 쌀을 담아두는 항아리나 독을 두는 공간, 부식재나 조리 기구를 두는 고방, 나무를 저장하는 나뭇광, 찬방 등의 부속공간을 두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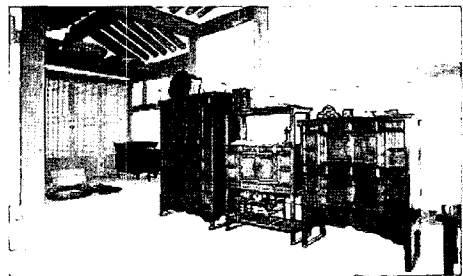


그림 5. 찬마루 위 수납공간

11) 주남철, "한국의 전통적 식생활 공간", 「한국 식문화 학회지」, 2권 2호, 1987, p.177

한편 찬방은 부엌에 연결하여 구성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뒤쪽으로 찬마루가 설치되고 그 위에 불박이장이 만들어진다. 찬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 찬장, 찬탁, 뒤주와 같은 가구와 취사용품을 놓았다. 찬마루에 상을 놓고 음식을 차리기도 하며 음식의 장만 혹은 다른 가사노동을 위해 걸터앉아서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곳은 넓은 의미로 볼 때 작업공간에 속하기도 하며, 현대 부엌의 작업대 중 배선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IV. 부엌공간과 인체의 인간공학적 분석

##### 1.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먼저 공간에 대한 일차적인 실측자료를 기초로 하여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물리적 측면에 대한 인체공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도구로서 3차원 인체 모델링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Safework<sup>12)</sup>를 이용하여 공간과 물체, 그리고 조선시대 인체치수<sup>13)</sup>를 적용한 마네킹의 모습을 simulation 하여 인간의 행태에 따른 공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2. 분석 기준

###### 1) 실측기준

공간과 인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각각의 지점들에 대한 기준은 <그림 7>과 같다.

12) Safework는 3차원 인체모델링을 위한 강력한 컴퓨터 도구이다. 이 s/w를 이용하여 주어진 환경에서의 인간을 모사하고 작업장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안전, 안락, 생산성 등의 조건을 최적화 시키는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Genicom, Montreal, SAFEWORk User's Manual, Christophe Paulus et al. 1994, p.4)

13) 본 연구에서는 최상현의 “조선상류주택 내부공간과 인체치수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1992. 8)에서 조선시대 성인 체위 기준표와 조선시대 성인체위 백분위 통계표를 조선시대 인체치수의 기준으로 삼았다.

<조선시대 성인체위 기준표>

측정범위	성별	
	남 (cm)	여 (cm)
키	161.1	147.2
눈높이	150.4	137.2
팔꿈치높이	100.5	92.6
어깨너비	41.5	39.2
몸통너비	43.2	38.7
가슴두께	19.9	19.6
앞은키	86.9	79.6
앞은눈높이	76.8	70.2
앞은어깨높이	58.1	52.7
앞은엉덩이너비	30.8	31.4
앞은팔꿈치높이	26.3	23.8
선지에서 위로쳐든 손끝높이	202.9	183.6

<조선시대 성인체위 백분위(percentile) 통계표(cm)>

	percentile	성별				
		키	눈높이	앞은키	앞은눈높이	앞은팔꿈치 높이
男	95%	168.82	158.81	91.1	81.09	29.85
	5%	152.84	143	79.49	72.23	22.25
女	95%	154.07	144.59	83.44	74.152	27.59
	5%	138.62	129.14	74.52	65.14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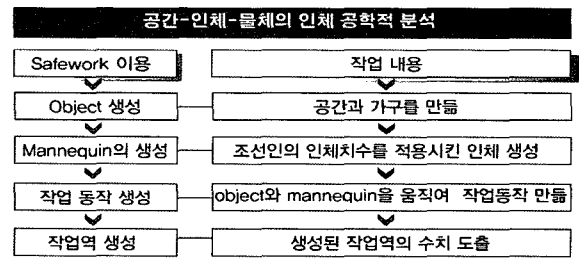


그림 6.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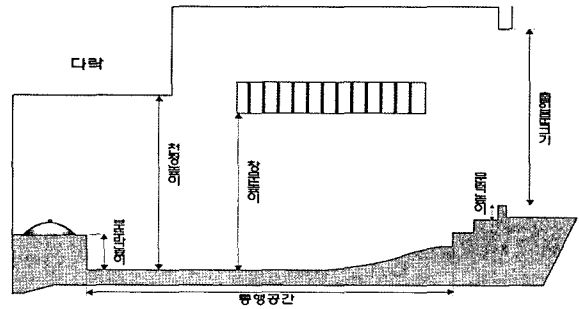


그림 7. 실측기준

###### (2) 분석의 틀

부엌 공간과 인간의 인간공학적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공간-인체의 관계를 살펴보는 「물리적 분석」으로서, 부엌의 천장, 바닥, 벽, 출입문, 창 등의 구조적 요소들과 인체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부엌 공간의 건축적 구조에 따른 모듈과 인체의 모듈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공간-인체-물체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행태적 분석」으로서 부엌에서 일어나는 작업행위와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부엌이 주부의 작업공간으로서의 효율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세 번째는 부엌공간과 인체의 비합리적 부분들에 대한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는 「환경적 분석」이 이루어진다.

##### 2. 공간-인체의 물리적 분석

###### 1) 평면적 분석

###### ① 평면 모듈

각 가옥의 기둥과 기둥 1칸을 등간격 분할한 결과 평면 모듈은 다음 <그림 8>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가옥의 모듈은 약 2척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면모듈은 조선시대 1인의 여성이 앉아서 작업할 때(530×560), 보행할 때(600×600), 서있을 때(432×270)의 인체 모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조척을 기준으로 계획된 전통가옥 칸의 구조적 모듈과 인체 동작의 기본 모듈이 서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그림 8>.

즉, 이것은 전통주거 계획에 있어 단순히 칸에 의한 모듈 개념으로만 공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 기본 행위의 모듈을 바탕으로 인간적 척도에 의한 관점에서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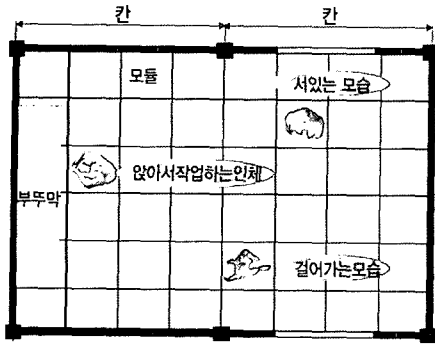


그림 8. 평면 모듈과 인체 모듈

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② 통행 공간

전통 부엌에서 통행 가능한 공간은 부뚜막 끝에서부터 벽체까지로 볼 수 있다. 인간의 기본 활동을 위한 허용 공간에서 2인이 무리 없이 왕래·활동하는데 필요한 공간 폭을 132 cm로 볼 때, <그림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가옥에서 충분한 통행공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출입문의 수평적 크기

조선시대 여자의 어깨 너비(39.2 cm)와 출입문의 수평적 크기를 비교해보면, 대상 가옥의 출입문 모두 문 한 쪽만을 열어 놓은 경우에도 출입이 가능하다.

2) 입면적 분석

① 실고(室高)

부엌의 실고(室高)는 다락이 있는 경우는 다락면까지를 천장 높이로 보고, 다락이 없는 경우는 서까래가 시작되는 부분까지를 천장높이로 보고 실측하였다. 앞서 제시한 조선시대 인체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사람이 선 키에서 손을 뻗은 높이(남: 202.9 cm, 여: 183.6 cm)와 비교해볼 때 모든 가옥의 실고는 여유가 있게 나타났다 <그림 10>.

② 문턱 높이와 출입문의 크기

부엌 바닥에서 문의 상인방 하단까지를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입면 크기로 볼 수 있으며, 단이 있을 경우 제일 위에 있는 단을 기준으로 하여 출입 가능한 입면 크기로 설정하였다. <그림 10>에서 보듯이 모든 가옥의 경우에서 사람이 문턱을 통과할 때 무리 없이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③ 문고리 높이

문고리의 높이가 사람이 문을 여닫기에 적당한 높이인지를 살펴보았으며, 각 가옥별로 문고리의 높이는 무리 없이 문을 여닫는 적당한 높이에 있는 가옥도 있고 그렇지 못한 가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사람이 손을 뻗어 잡을 수 있는 범위에 놓여있었다. 조사 가옥 대상 모두 문고리의 높이는 문 입면 크기의 약 1/2 정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문고리가 인체에 대한 고려보다는 입면의 의장적인 조형원리가 우선시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0>.

④ 창문 높이

창문의 높이가 사람이 서서 밖을 다 볼 수 있도록 눈높이가 고려되었는지 살펴본 결과 김동수가옥, 윤택영가옥, 윤씨 친가 3가옥이 이에 해당되었으며, 이들은 눈높이뿐만 아니라 채광과 통풍까지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증고택과 윤조루는 창문의 높이가 밖을 조망하기엔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이것은 창의 기능이 조망보다는 채광과 통풍에 치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엌은 불을 사용하는 특수한 공간으로서 창의 높이 위치함으로써 내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대류현상을 통해 배출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1>.

⑤ 찬마루 높이

찬마루를 하나의 작업 공간의 연장으로 볼 때, 앞서 현대의 배선대와 같은 공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던 것처럼 이곳에서는 수납의 기능 뿐 아니라 상을 놓고 음식을 차리는 기능도 있다. 따라서 사람이 걸터앉아서 작업을 하거나 혹은 찬마루에 오르내리는 정도가 인체에 무리가 없는지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다음 그림과 같이 찬마루가 있는 3개의 가옥 모두 앉아서 작업하기에는 적당하나 오르내리기에는 부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가옥	김동수가옥	윤증고택	윤택영가옥	박영효가옥	김윤영가옥	윤씨친가	윤조루
평면 모듈							
규모	4950×3380	5000×4920	4920×2460	5000×6350	2340×2400	4650×3660	6575×3730
모듈	618×676 (약 2척×2척)	625×615 (약 2척×2척)	615×615 (약 2척×2척)	625×635 (약 2척×2척)	585×600	581×610	597×621
통행 공간	4140>1320	4270>1320	1650>1320	4205>1320	1670>1320	3610>1320	2280>1320
문 크기	930/920	985	1200	1200	1100	1100/980	840/640/900
인체 모듈	보행(600×600)=(2척×2척)		직립(432×270)		앉아서 작업(530×560)		

그림 9. 부엌의 평면모듈과 인체모듈과의 관계 (단위: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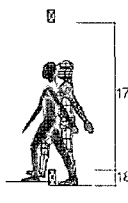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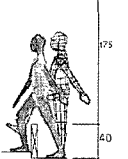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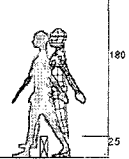
가옥	김동수가옥	윤증고택	윤택영가옥	박영효가옥	김춘영가옥	윤씨친가	윤조루	
동작역								
실 고	2160	2070	2000	3170	2390	2510	3120	
출입문	크기	① 1970 ② 1940	1720	1880	2150	1875	① 2050 ② 1910 ③ 1970	
	상태	적절	적절	적절	적절	적절	적절	
문턱	크기	① 180 ② 200	195/160	270	① 400	425/360	① 170 ② 230/260 ③ 200	
	상태	적절	적절	다소 높음	높음	높음	적절	다소 높음
문고리	크기	① 990 ② 1360	960	1050	1420	1110	① 1190 ② 1310	① * ② 1360 ③ 1150
	상태	적절	적절	다소 높음	다소 높음	다소 높음	다소 높음	다소 높음
비고	건축법 시행령 제 21조에서 제시한 주택의 계단의 권장높이 23cm이하를 기준 문이 여러 개인 경우 ①, ② 로 구분 문턱높이는 내부바닥에서 문턱윗면까지를 실측하였으며, 문턱이 여러 단인 경우 윗단/아랫단으로 치수 표시 문고리의 높이는 내부 바닥에서 문고리까지의 높이이며, 단이 있을 경우 가장 위에 있는 단을 기준							

그림 10. 부엌의 출입문과 인체의 관계 (단위: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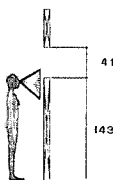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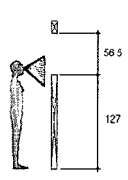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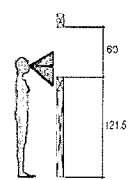
가옥	김동수가옥	윤증고택	윤택영가옥	박영효가옥	김춘영가옥	윤씨친가	윤조루	
동작역		-		-	-		-	
창높이	크기	1430	2545	1270	창 없음	창 없음	1050	2970
	상태	다소 높음	높음	적절	×	×	적절	높음
용도	동경	△	×	○	×	×	○	×
	채광	○	○	○	×	×	○	○
	통풍	○	○	○	×	×	○	○
비고	부엌바닥에서 창틀 윗면까지를 창턱 높이로 설정 인체의 눈높이 137.2cm(조선시대 여자 눈높이)를 기준							

그림 11. 창문의 높이와 인체의 관계 (단위: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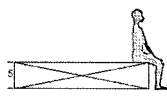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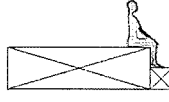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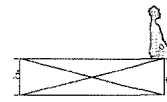
가옥	김동수가옥	윤증고택	윤택영가옥	박영효가옥	김춘영가옥	윤씨친가	윤조루
동작역	-	-	-				-
찬마루높이	-	-	-	385	690/360	565	-
상태	앉아서작업	-	-	○	○	△	-
	오르내림	-	-	×	×	×	-
비고	부엌바닥에서 찬마루 윗면까지를 기준 힘을 안들이고 올라가기에 좋은 단의 높이는 최소 12.5cm에서 최대 20cm를 기준으로 봄						

그림 12. 찬마루 높이와 인체의 관계 (단위: mm)

3. 공간-물체-인체의 행태적 분석

전통부엌에서 물체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과 각종 행위

에 따른 작업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작업공간으로서 주부의 동선과 면적이 합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 4. 부뚜막 크기와 작업 면적비

가 옥 명	높이 (mm)	깊이 (mm)	길이 (mm)	작업 가능면적 (m <sup>2</sup> )	부뚜막 면적 (m <sup>2</sup> )	작업 면적비 (%)
김동수 가옥	570	730	2010	0.5	1.47	34.01
윤중 고택	420	780	2460	0.78	1.92	40.62
윤택영 가옥	530	710	3340	1.09	2.45	44.67
박영효 가옥	460	715	4120	1.28	2.95	43.39
김춘영 가옥	390	590	2120	0.61	1.25	48.80
윤씨 친가	530	960	3560	1.26	3.42	36.84
윤 조 루	350	740	3010	0.86	2.31	37.23

살펴보고자 한다.

1) 평면적 분석

(1) 작업 공간 분석(공간-물체)

① 부뚜막 작업 공간

부뚜막은 현대 부엌의 작업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앞서 <그림 2>에서 살펴본듯이 솥을 걸어 놓은 곳은 가열대, 솥을 걸지 않은 공간은 준비대나 조리대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작업대에서 추천하고 있는 조리대의 길이는 최소 60 cm에서 90 cm로 정하고 있고 준비대의 길이는 40~50 cm이며, 작업대의 깊이를 최소폭 61 cm<sup>14)</sup>로 볼 때, 준비대와 조리대의 면적은 0.61~0.854 m<sup>2</sup>이다. 다음 <표 4>는 각 가옥별로 실측된 부뚜막의 크기와 부뚜막에서 작업 가능한 면적을 산출한 것이다.

앞서 제시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통가옥의 부뚜막에서 솥을 걸지 않은 공간의 면적은 가옥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가옥이 이와 비슷한 면적을 보이고 있거나 이보다 더 많은 작업 면적<sup>15)</sup>(0.5~1.28 m<sup>2</sup>)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업 면적 면에서는 현대 부엌의 작업대보다 더 능률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② 작업 공간

부뚜막의 면적만을 제외한 공간을 부엌에서 작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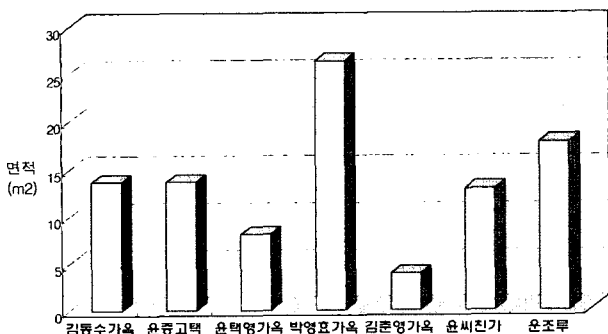


그림 13. 가옥별 작업 가능한 바닥 면적 (m<sup>2</sup>)

14) 건축용도별자료집성 : p.58 작업대는 최소한 폭 610 mm, 높이 914 mm 정도가 적당하고 찬장에서 최소한 1020 mm 정도 떨어져서 작업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15) 본 논문에서는 작업대 중에서 가열공간을 제외하고 개수대와 조리대와 같이 순수하게 작업할 수 있는 면적을 작업면적이라 칭한다.

한 영역으로 가정하여 작업면적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전통 부엌의 작업공간은 을 보면 2인이 바닥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최소면적을 1.2×1.8m<sup>16)</sup>로 보았을 때, 전통주거의 부엌은 모든 가옥에서 2인 이상 작업하기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작업 동선

현대 부엌에서의 작업 동선의 합리성 여부는 작업 삼각형<sup>17)</sup>으로 설명되어지는데, 이를 바탕으로 전통 부엌공간의 작업삼각형 요소를 도출<sup>18)</sup>하여 각 가옥별로 작업 동선을 살펴보았다.

표 5. 작업동선 길이 단위(mm)

가 옥	김동수 가옥	윤택영 가옥	박영효 가옥	김춘영 가옥	윤씨 친가	윤조루
작업 삼각형	8909	3649 ~3690	7512 ~8592	3997	9187	5334 ~5526

조사 결과 윤택영 가옥, 김춘영 가옥, 윤조루를 제외한 나머지 가옥들은 작업삼각형의 적정한 범위(3.6-6.6 m)의 범위보다 긴 작업동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전통주거에서 작업하는 여자의 작업능률을 위해 동선의 단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다는 현대 부엌에서 행해지는 작업행위의 다양성과 많은 일의 양을 수용하기 위해 실 면적과 작업 가능한 면적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작업 영역 분석 (공간-물체-인체의 행위)

① 가구와 인체의 작업역

<그림 15>는 각 가옥에 배치되어 있는 가구들과 인체가 이루고 있는 작업역을 약간 구부린 자세, 선자세로 구별하여 safework의 모델링 작업을 통해 작업역을 나타낸 것이다. 김동수 가옥과 윤조루에 배치되어 있는 선반과 불박이 찬장에 대한 가구 치수는 실제로 가옥에 배치되어 있는 가구의 치수를 근거로 작업역을 구하였으나, 나머지 가옥들의 찬장, 찬탁, 뒤주 등의 가구는 평균치<sup>19)</sup>를

16) 김지은, 한국인의 식생활 문화에 맞는 부엌계획을 위한 현장연구, p.30,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96.6

17) 작업삼각형(work triangle)이란 저장을 위한 장소(냉장고), 준비와 세척을 위한 장소(개수대), 조리를 위한 장소(가열대)의 정점을 연결한 삼각형을 말한다. 이러한 작업삼각형의 합이 6.6 m 이상이면 비능률적이며, 능률적인 작업삼각형의 동선의 합은 3.6~6.6 m 정도가 되는 것이 좋다.

18)

작업대 구분	작업장소
준비대	부뚜막, 부엌바닥
조리대	부뚜막의 솥이 걸리지 않은 부분
개수대	부엌바닥, 부뚜막 위, 우물
가열대	부뚜막(솥이 걸려있는 부분)
배선대	찬방, 찬마루

19) 찬장(길이×깊이×높이): 153.2×59.2×166

찬탁(길이×깊이×높이): 147.2×40.7×149.2

뒤주(길이×깊이×높이): 100×50-60×60

(배달실, 한국목가구의 전통양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131,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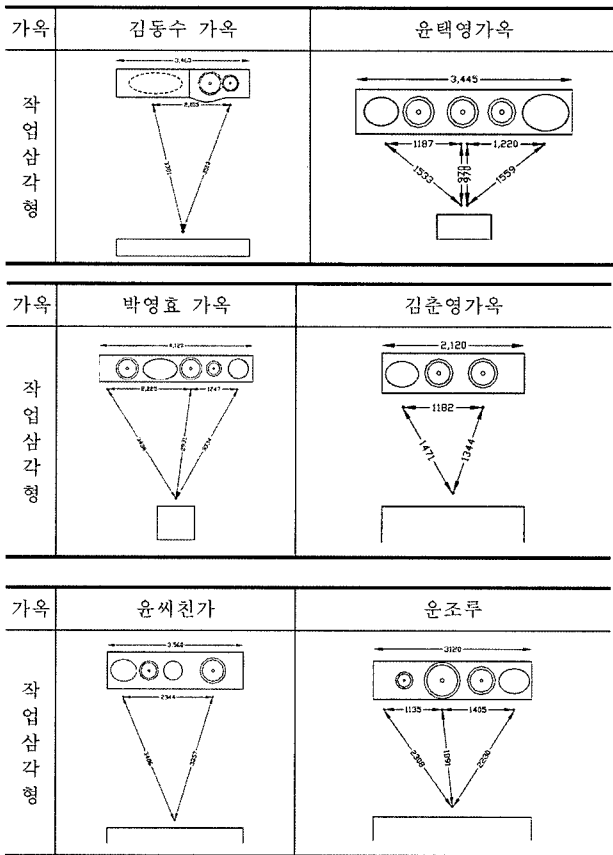


그림 14. 가옥별 작업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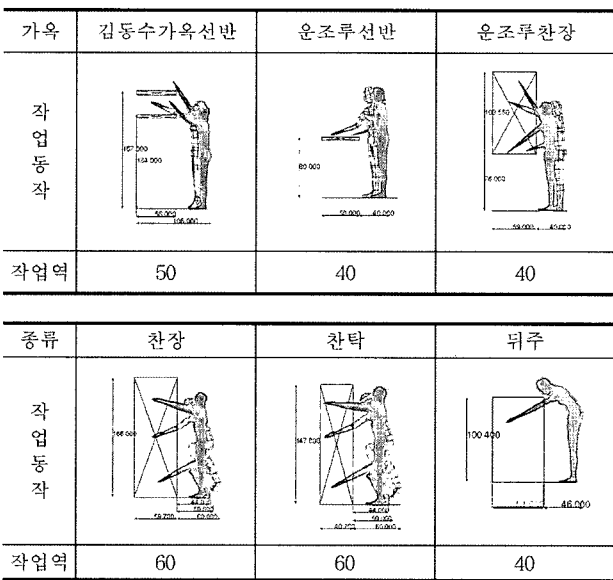


그림 15. 가구와 인체의 작업역 (cm)

구하여 대상가옥 모두 같은 치수를 적용하여 작업역을 산출하였다.

② 부뚜막과 인체의 작업역

<그림 16>은 부뚜막에 사람이 서서 취사 작업하는 경우, 앉아서 취사 작업하는 모습과 난방 작업하는 행위에 따라 차지하는 작업의 영역과 인체의 작업 모습을 safe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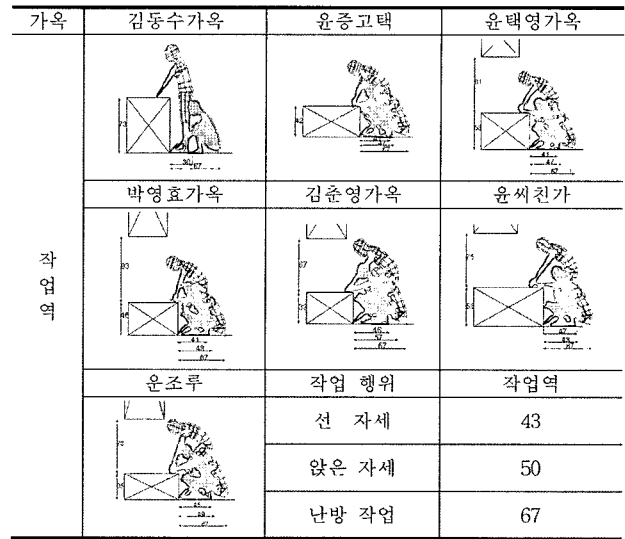


그림 16. 부뚜막과 인체의 작업역 (단위: mm)

의 모델링 작업을 통해 작업영역을 분석한 결과 면적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난방작업이며, 다음은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 서서 작업하는 순으로 나타났다.

③ 작업 공간과 여유 공간

<그림 15>와 <그림 16>을 통해 부뚜막이나 각종 가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따라 도출한 작업역의 수치를 토대로 하여 나타난 부엌의 총작업면적은 <표 6>과 같다. 대부분 조사 대상 가옥에서 나타난 부뚜막-가구-인체가 이루는 작업면적비는 최소와 최대값을 나타내는 윤증고택과 윤택영 가옥을 제외하면, 실면적의 약 35~53%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한 부엌 내의 여유 면적비는 약 46~65%로 나타났다.

2) 입면적 분석

① 가구와 인체의 수직 작업역

<그림 15>에서처럼 찬장이나 찬탁, 뒤주의 경우 높이는 인체가 작업하는데 무리가 없는 치수임을 알 수 있다. 김동수 가옥의 경우 아래쪽 선반의 경우 수납하기에 적합한 높이이나 위쪽 선반의 경우 발돋음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선키에서 손을 위로 쳐든 높이가 183.6 cm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쪽의 선반이 있는 167 cm의 높이는 16.6 cm의 여유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표 6. 물체의 작업면적비와 여유 면적비

가 옥 명	실면적 (m <sup>2</sup> )	작업면적 (m <sup>2</sup> )	작업 면적비 (%)	여유면적 (m <sup>2</sup> )	여유 면적비 (%)
김동수가옥	16.73	6.396	38.23	10.334	61.77
윤증 고택	24.58	3.568	14.52	21.012	85.48
윤택영가옥	12.10	9.680	80.00	2.402	19.85
박영효가옥	41.65	14.745	35.40	26.905	64.58
김춘영가옥	11.23	5.993	53.37	5.237	46.63
윤씨 친가	33.05	15.92	48.17	17.13	51.83
윤 조 루	22.51	8.842	39.28	13.668	60.72

인체와 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운조루의 선반은 80cm 높이에 있어 서서 작업하거나 물건을 손쉽게 수납할 수 있는 적당한 높이에 있다.

② 부뚜막의 높이

서서 작업을 할 때의 바람직한 작업대의 높이는 신장의 약 52%라고 할 때, 이를 기준으로 조선시대의 인체치수 52%에 적용하면 76.5cm 정도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조사대상 7채 가옥의 부뚜막의 높이는 39~57cm로 평균 46.4cm로 서서 작업하기에 부적합한 높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뚜막의 높이는 서서 일하기에 편리하게 만들어지기보다는 난방을 하기에 적합한 높이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4. 공간-환경에 대한 환경적 분석

사례 분석을 통해 대부분 한국전통주거의 부엌공간의 물리적 공간이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인체와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던 부분도 있으나 작업에 부적합한 물리적 구조를 보이고 있는 요소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공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기능적 측면에서만 바라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복합적인 환경의 산물이다. 주거의 형태와 공간속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 즉 사회적·문화적 요인, 그리고 기후·풍토와 같은 자연적 요인과 미학적 요인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거공간은 그 시대 문화의 구체적 표현체이자 인간의 기본 행위가 펼쳐지는 본질의 표현체이기도 하다.

이는 공간을 이해할 때에 기능적 측면을 통해 능률성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자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통 주거의 부엌 또한 <표 7>에 서술한 바와 같이 여러 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태와 구성, 위치, 물리

적 구조 등이 영향을 받아왔다.

5. 소결 : 공간-인간-환경을 고려한 생태학적 생활공간

전통주거의 부엌 공간이 인간을 고려한 생활공간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크게 물리적·행태적·환경적 분석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문턱 높이가 넘나들기에 대부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다소 높은 가옥의 경우는, 온돌의 발달에 의해 나타난 난방구조로 인해 부엌 바닥이 낮아짐에 따라 외부의 바닥 지면과 레벨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고리의 높이가 손잡이 높이로서는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문고리를 잡지 않아도 열 수 있는 여닫이 구조라는 점에서 문고리의 기능적 측면보다는 미학적 측면에서 비례를 우선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창문의 높이가 채광 뿐 아니라 사람이 밖을 조망할 수 있는 상태에 위치한 가옥도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가옥의 경우는 창이 높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창이 조망이 목적이 아니라 채광과 통풍을 위해 대류현상을 이용한 자연적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작업동선이 길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작업공간자체가 현대의 부엌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가족구성원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부엌에서 다양한 행위와 작업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작업동선은 우물과 장독대, 부엌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도 비능률적인 점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음식물 보관을 위해 서늘한 장소에 장독대를 두었기 때문으로서 기능적 측면의 동선이 우선시되기 보다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려한 조상들의 생태학적 삶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8. 공간-인간-환경의 생태학적 관계

		분석 요소	물리적·행태적분석	환경적분석
공간	평면적	평면모듈	인체 모듈과 적합	
		통행공간	적합	
		출입문수평크기	적합	
	입면적	실고	적합	
		출입문크기	적합	
		문턱높이	적합/다소높음	자연적요인
인체의 물리적 분석	문고리높이	적합/다소높음	미학적요인	
	창문높이	적합/다소높음	자연적요인	
	찬마루높이	앉아서 하거나 서서 하는 작업에 적합		
	부뚜막 작업공간	작업 공간 충분		
공간-물체	평면적	부엌 내 작업공간	작업 공간 충분	
		작업동선	비효율적	사회적요인
	인체의 행태적 분석	작업공간과 여유공간	작업영역 충분 여유공간 충분	
		부뚜막-인체 수직작업역	작업대로서 부적합	자연적요인
입면적	가구-인체 수직작업역	적합		

표 7. 부엌 공간 구성에 영향을 끼친 환경적 요인

요인	표현 방법
자연적 요인	- 각 지역별 기후와 풍토에 따라 조선시대 이후 온돌 난방구조의 발달은 부엌 공간 구성에 영향을 끼침 - 채광, 통풍(대류현상)을 위해 창을 높이 내달음
사회문화적 요인	- 여성전용공간인 안채에 구성함으로써 대문에서 멀리 떨어져 폐쇄된 공간의 성격을 지님
	- 내외법에 따라 안채와 사랑채를 구별
	- 부엌의 경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안방과 연결
	- 남녀유별의 윤리관에 따라 신분별, 남녀별, 세대별로 상을 차리므로 여러 器皿을 수납하기 위해 도장방, 고방, 다락 등 다양한 부속공간이 생김
풍수지리	- 부엌 및 가옥의 배치에 영향을 줌
	- 음양오행에 따라 부엌과 우물이 먼 곳에 위치함으로써 동선이 길어짐
민간 신앙	- 각 공간에 신이 있다고 믿음에 따라 부엌에는 조왕신, 안방의 삼신, 집 전체의 성주신 등을 모셔놓는 장소를 마련
미학적 요인	- 건축 벽면은 수장계에 의해 수직적·수평적으로 면분할된 기하학적 미 추구함으로써 창의 위치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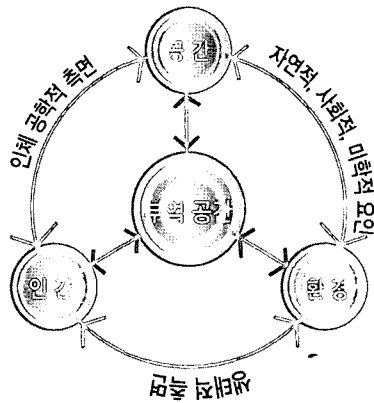


그림 17. 공간-인간-환경을 고려한 계획

부뚜막의 높이가 작업대로서 부적합하게 나타난 것은 작업대로서의 기능이 먼저이기 보다는 집안의 난방을 위한 기능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적 환경에 대한 적응의 결과인 것이다. 즉 전통건축공간에서의 공간의 물리적 체계는 인간의 합리적 생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에 순응하며 조화로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생태적 생활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 V. 결 론

전통 주거의 부엌은 주거공간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을 하는 여자에게 있어서 비능률적인 공간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것은 우리의 부엌 공간에 대한 분석이 공간과 인체간의 행태학적 측면에서 볼 때, 서양처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체를 주관적이고 은유적인 미학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공간을 지극히 물리적 측면과 사용자 중심의 관점으로 파악하는 현대 건축을 바라보는 방법으로 우리의 공간을 바라본 성급한 결론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주거의 부엌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재조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공간-인체의 물리적 분석」에서 평면모듈은 인체모듈과 부합되게 나타났으며, 통행공간, 출입문의 크기, 室高 등은 모두 인체를 고려하여 계획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공간-물체-인체의 행태적 분석」에서는 작업대로서의 부뚜막의 면적이거나 작업공간으로서 부엌의 면적이 넓게 나타남에 따라 다양한 작업행위 및 작업인원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현대의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식사할 때가 가족과 밀접하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엌에서 가족이 함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부엌 면적의 증가 측면에서 고려해 볼만

한 요소이기도 하다.

3. 「공간-환경적 분석」에서는 1과 2에서 부적합하게 나타난 요소들-문턱높이, 문고리높이, 창 높이, 작업동선, 부뚜막의 높이 등-은 인체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라 자연, 인문·사회적, 미학적 요인들과 상호 반응하여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공간을 계획하는 건축적 행위는 인간을 위한 물리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공간-인간-환경 서로의 상호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결과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분명 서양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해 전통주거의 부엌 공간은 인간을 위한 물리적 셋팅 체계를 가지고 있는 생활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엌 공간은 여성이 작업하기에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것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인간과 공간,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간의 관계를 중요시한 생태학적 생활공간이었다는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공간의 합리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면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현대 건축의 구축행위와 이에 대한 반발로 대두되고 있는 생태건축적 흐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1. 小原二郎 外(1987), "INTERIOR DESIGN 計劃과 設計", 국제출판공사.
2. McCullogh. Helen E(1955), "A Pilot Study of Space Requirements for Household Activities", Journal of Home Economics.
3. 박영순 외(1988). 우리 옛집 이야기; 한국전통 주택의 실내공간, 열화당.
4. 배만실(1988), 한국목가구의 전통양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5. 이호진(1991), 허병이 역, 인간척도와 실내공간설계, 대건사.
6. 신태양(2001), 공간의 이해와 인간공학, 도서출판 국제.
7. 신영훈(2003), 우리한옥, 현암사.
8. 최민권 역(1987), 인간공학: 디자인을 위한 생활동작과 실내공간 도집, 산업도서출판공사.
9. 주영애(1992.3), 조선조 상류주택의 살림공간에 관한 생활문화적 고찰,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10. 김지은(1993.6), 한국인의 식생활 문화에 맞는 부엌공간 계획을 위한 현장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1. 윤정옥(1981.2), 한국의 전통적 주방공간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2. 최상헌(1992). 조선상류주택 내부공간과 인체치수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8
13. 이영미(2000.2), 한국전통주거의 부엌과 인체치수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
14. 한국표준연구소(1986), 국민 표준체위 보고서.
15. 대한건축학회(1981), 주택 건설의 공업화를 위한 주택 각 부위의 표준치수 설정과 주택 성능에 관한 연구, 건설부.

(接受: 2005. 10. 21)